

離農과 脫農에 對備한 農村發展方向

金 炳 道

嶺南大學校 副教授, Ph.D.(農業經濟學)

- I. 問題의 提起
- II. 離農·脫農의 現況과 그 原因
- III. 離農·脫農의 助長과 防止
- IV. 離農·脫農에 對備한 農村發展方向

II. 離農·脫農의 現況과 그 原因

1. 離農의 現況과 그 特性

I. 問題의 提起

1962년 이후 5차례에 걸친 經濟開發 5個年 計劃의 추진 결과 우리 나라는 그 產業構造가 급격히 변화되고 交通이 발달됨에 따라 農業人口가 外部와의 접촉이 잦아지면서 近年에는 많은 農業人口 및 農家戶數가 감소되어 營農後繼者 育成이라는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農業人口의 감소는 세계적인 趨勢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단순히 社會的 人口移動 現象이라고만은 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원인을 찾아보고 또 農業人口의 比率이 현저히 감소된 이 즈음에도 國民經濟 및 農村 發展을 위하여 離農·脫農을 助長하여야 할 것인가 아니면 離農·脫農을 防止하여 농촌 발전에 임할 것인가를 고찰하여 보고자 함이 本論이 시도하는 바 그 목적이다.

離農·離村·脫農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기는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離農이라고 하는 것은 農業이라는 職業으로부터 他職業 혹은 產業으로 전직하는 경우를 뜻하며, 離村이란 定住地域이었던 農村으로부터 非農村인 他地域으로 이주하는 경우이다. 그리고 脫農이란 農業과 農村에서 완전히 이탈하여 職業도 定住地域도 옮기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물론 그것이 社會的 事情 때문이나 個人的 事情이나, 恒久的이나 一時的이나, 그리고 全體의(全家族과 全生産手段)이나 部分的이나에 따라서 離農·離村·脫農의 개념을 달리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本論에서는 이들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農村과 農業을 떠나서 주로 都市로 이주하여 轉職 또는 轉業하여 생활하는 것으로 개념짓기로 한다.

農村人口 또는 農業人口가 감소되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다(農林部 農政局). 이미 英國은

表 1 農家戶數, 農家人口 및 그 構成比의 變化

年 度	農 家 戶 數 (準農家除外)	農 家 人 口			農家人口 全家口 ×100 (%)	農家人口 全人口 ×100 (%)
		計	男	女		
1960	2,329,128 (108.03)	14,242,489 (131.50)	7,000,781 (129.27)	7,241,708 (133.73)	53.7	58.3
1970	2,483,318 (115.17)	14,421,730 (133.16)	7,163,515 (132.28)	7,258,215 (134.04)	42.4	45.9
1975	2,379,058 (110.35)	13,244,021 (122.28)	6,653,834 (122.87)	6,590,187 (121.70)	35.2	38.2
1980	2,155,915 (100)	10,830,585 (100)	5,415,551 (100)	5,415,034 (100)	27.0	28.9

() 안의 숫자는 1980년을 기준으로 한 비율임.

資料: 農水産部, 「1960 농업센서스」 및 「1970 농업센서스」.

————, 「1975 간이 농업센서스」, 「1980 간이 농업센서스」 및 「농업센서스 속보」.

————, 「농림통계연보」, 1981.

————, 「인구 및 주택센서스 잠정보고」, 1980.

1851년, 美國은 1910년, 프랑스는 1921년, 덴마크는 1930년, 日本은 1952년부터였다. 우리나라도 社會 및 産業의 변천과정에 따라서 農家戶數 및 農業人口가 1966년부터 그 絶對數가 감소하기 시작하여 1980년 현재에는 農家戶數와 農業人口의 比率이 각각 27.0%, 28.9%로 감소되었다. 이것은 곧 離農·脫農현상을 입증하는 한 斷面이기도 하다.

그간의 農業센서스 資料와 事例調査資料(慶南北의 17개郡, 39개 마을에서 청취조사)에 의하여 離農의 現況과 그 特性을 분석하여 본다.

(1) 1960년 농업센서스를 基點으로, 1980년까지의 農家戶數·農業人口 및 그 構成比의 變化를 보면 <表1>과 같다.

동期間에 그 構成比率이 감소하였다는 것보다도 農家戶數와 農業人口의 絶對數가 감소하였다는 것이 급격한 離農現象이 일어났음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農家人口 중 男女別比率은 거의 같은 비율로 감소하였다.

1981년을 기준으로 한 事例調査에서도 農業人口의 性別 離農의 상태가 거의 같은 비율로 감소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男女는 각각 1981년 7월이 1960년보다 16.0%, 15.5%, 1965년보다 14.6%, 14.4%, 1970년보다 14.0%, 16.2% 그리고 1975년 보다 9.8%, 10.8%가 감소되었

表 2 農業人口의 年齡別 構成과 그 變化

연도	年 齡				계 (%)
	14세 이하	15~29세	60세 이상		
1968	40.0 (164.1)	53.0 (144.3)	7.0 (95.4)		100
1970	45.2 (168.0)	46.9 (115.7)	7.9 (98.6)		100
1975	39.3 (134.0)	51.9 (117.7)	8.8 (100.4)		100
1979	35.6 (100)	53.7 (100)	10.7 (100)		100

() 안의 숫자는 1979년을 기준으로 年齡別 構成比의 變化를 보여주는 것임.

資料: 農水産部, 「농림통계연보」, 1970 및 1980.

————, 「농업센서스」, 1970 및 1975.

음을 보아 男女는 거의 같은 비율로 감소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그러나 農村人口의 年齡別 構成比의 變化 <表 2>를 보면 14세 미만 계층은 현저히 감소된 반면 60세 이상 계층은 적은 비율이기는 하지만 증가하였다. 또 經濟活動人口 중 農業就業者에 있어서도 14—39세 계층은 감소(그중 14—19세 층은 현저히 감소되었다)된데 반하여 40세 이상 계층은 증가되고 있는데 이것은 農業勞動力의 老齡化를 말해 주는 것으로서 離農에 따른 農業生産性 提高에 問題點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 <表 3참조>.

(3) 또한 耕地規模別 農家戶數의 變化 <表 4>와 耕地規模別 離農家口狀況을 보면 우리나라는 그간 전체 耕地面積에 큰 증감의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1.0ha 이상 농가계층은 70年代初까지는 증가하다가 1975년 이후부터는 감소되고 있다. 그러나 1.0ha 미만 계층은 처음부터 계속

表 3 農家就業者の 年齡別 構成比의 變化

연 도	취 업 총 수 (1000명)	14~19	20~29	30~39	40~49	50~59	60세 이상
1963	4,943 (92.3)	(175.1)	(145.9)	(103.2)	(65.9)	(64.3)	(47.8)
1965	5,071 (94.7)	(195.0)	(141.1)	(111.0)	(67.6)	(65.0)	(44.8)
1970	5,116 (95.5)	(199.2)	(103.8)	(128.1)	(75.3)	(67.7)	(57.0)
1975	5,602 (104.6)	(196.0)	(115.5)	(115.6)	(85.9)	(95.6)	(80.6)
1979	5,356 (100)	(100)	(100)	(100)	(100)	(100)	(100)

註: () 안의 숫자는 1979년의 취업자수에 대한 年齡別 증감률, 年度別 증감율을 표시함. 즉, 100보다 많은 숫자는 그 年齡別 증감률의 취업자가 감소된 것을 말하고 100보다 적은 숫자는 증가되어 가고 있음을 말함.
資料: 경제기획원, 「경제활동인구연보」, 1974, 1979.

表 4 耕地規模別 農家戶數의 變化

年 度	農 家 戶 數 總 計	農 家 戶 數			
		1.0ha 미만	1.0~2.0	2.0~3.0	3.0ha 이상
1960	2,329,128	1,652,758	562,074	94,763	19,533
1970	2,379,378	1,597,319	639,369	123,391	37,299
1975	2,284,736	1,519,140	617,897	111,717	35,982
1979	2,079,921	1,407,780	555,630	89,733	26,778

註: 농가호수에는 準農家, 耕種外 農家は 除外되었음.
資料: 농림부, 「농림국세조사」, 1960.
농수산부, 「농림통계연보」, 1980, 1981.

表 5 家口員 移住 및 所有耕地處分狀況

家口員 移住狀況	%	耕地 處分狀況	%
全家族 移住	70.2	全部 賣渡하고 轉出	44.0
一部家族만 移住	27.9	一部 賣渡하고 轉出	26.8
家口主 單獨 移住	1.4	全部 賃貸시키고 轉出	16.2
其 他	0.5	其 他	13.0

감소되고 있어 대체로 離農은 零細小農層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狀況은 事例調查에서도 同一하여 全離農家口 중 91%가 1.0ha 미만 농가로 나타났었다.

그밖의 離農할 때의 家口員 移住狀況과 所有耕地處分관계는 <表 5>에서 보는 바와 같다. 全家族이 이주하는 경우와 所有耕地를 전부 혹은 일부 매도하고 離農하는 比重이 큰 것으로 보아 그간 우리 나라의 離農은 일시적인 상태였다기 보다는 恒久的인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轉出(離農)의 季節은 봄 44.6%, 여름 10.8%, 가을 14.4%, 겨울이 30.2%로 收穫이 끝난 후부터 이듬해 農事가 시작되기 전을 대체로 택

하고 있다.

2. 離農의 原因

세계의 각 나라들은 그 나라의 발전과정에서 賃金 및 生活水準의 地域의 差異, 工業部門에 있어서의 就業機會의 擴大 등의 이유로 所得水準이 높고 就業機會가 많은 地域으로 勞動力이 이동되었음은 이미 立證된 바이다. 우리 나라에 있어서도 최근에 들어 流出要因에 의하든 流入要因에 의하든 간에 年平均 40—50萬名의 農家人口가 감소되고 있음에 거기에는 그러한 原因이 있을 것이므로, 이를 살펴보기로 한다. 물론 離村向都 性向은 여러 視角에서 검토될 수 있을 것이나, 本論에서는 이를 環境의이고도 主觀的인 原因과 經濟的이고도 客觀的인 原因으로 구분하여 고찰해 보기로 한다.

環境的이고도 主觀的인 原因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1) 農業과 農民에 대한 輕視觀이 지적되고

있다. 農業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농민은 사회적 지위가 낮고 천시당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2) 農業은 有機的인 生産인데다가 더욱 우리나라 農業은 영세하여 勞動集約的이고 힘든 肉體노동을 필요로 하게 되어 重勞動으로부터 탈피하고자 함이 그 原因이기도 하다.

(3) 農村은 生活上의 環境조건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教育환경, 交通, 통신, 衛生, 병원 등의 福祉施設의 未備로 거주지역으로서 농촌이 都市에 비하여 훨씬 뒤떨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4) 教育指向度의 上昇, 都市生活의 憧憬, 結婚배우자 선택의 어려움 등도 그 이유이다.

(5) 離農者는 직업보장(6.3%)이 적고 어떤 緣故가 없음(45%)에도 불구하고, 離農하는 것을 보면 무조건 離村向都하는 경향도 많다.

經濟的이고도 客觀的인 原因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農村의 相對的인 低所得은 앞으로 都農間의 所得隔差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 여겨 보다 많은 收益의 획득을 위해서이다. 이것은 離農을 하게 되는 으뜸된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장차 農業의 收益性에 대한 기대라는 設問에서도 알 수 있다. 즉, 농업이 장차 수익성이 높을 것이라는 反應은 불과 15%인데 비하여 그저 그럴 것이라는 反應이 64%이고 낮을 것이라는 反應이 21%로 나타났다.

(2) 都市 商工業의 발달에 따라 農業勞動力이 흡수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3) 科學的인 營農能力과 營農基盤이 미흡하고 또 農外就業機會마저 거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4) 教育費 부담이 과중하고 營農費의 調達이

表 6 離農動機와 靑少年들의 向都理由

離農動機(理由)	%	靑少年들의 向都理由	%
다른 직업을 찾아서	39.0	농촌은 수입이 적어서	37.5
취직이 되어서	12.4	교육기관이 미비해서	32.5
좋은 환경을 찾아서	18.6	취업기회가 부족해서	12.5
자녀 교육 때문에	9.4	문화시설, 환경불비	11.3
무작정	7.3	기 타	6.2
기 타	13.3		

表 7 農業에 대한 滿足度

항 목	離村할 것이라는 靑少年들의 만족도	農業에 종사할 것이라는 靑少年들의 만족도
만 족	2.5%	53.8%
불만족	47.5%	5.0%
그저 그렇다	41.3%	33.8%
모르겠다	8.8%	7.5%

어렵다는 것이다.

(5) 農業生産의 交易條件이 불리하고 農業發展에 대한 財政投資의 不足 등 일관성 없는 農業政策으로 보아 農村生活의 展望이 없음을 豫見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人間은 누구나 그 行動의 動機를 볼 때 生存이나 生活의 領域에 있어서 同化되고 존경받으며 보람을 찾고자 하는 意欲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自己行動의 結果가 보상이 없거나 고통스럽다고 예상되면 그것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本能的이므로 以上の 原因들을 보아 就業과 離農의 限界(金文植 1658)를 短期的으로는 可變費用과 固定費用의 일부만 회수되어도 營農을 하게 되고, 長期的으로는 勞動報酬의 有無에 의해서 營農이 결정된다던 시기는 지난 것 같다.

이 原因들은 <表 6>, <表 7>의 內容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고 심지어는 農高出身者의 약 10%만이 營農을 희망한다는 사실을 볼 때 離農과 관련하여 農村生活 또는 農村經濟는 그 문제의 심각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Ⅲ. 離農·脫農의 助長과 防止

1. 農村人口의 過疏化와 相對的 過剩人口

農村人口의 過密·過疏를 막연히 人口의 大量, 少量 만으로만 개념지을 수는 없다. 그 地域社會의 社會體系 維持가 곤란할 정도로 人口가 증가된 상태를 過密이라 할 것이고 그 地域社會의 社會體系 유지가 곤란하게 될 정도로 人口가 감소되는 상태를 過疏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過疏란 農村人口와 戶數의 流出이 급격히 발생된 결과 그 地域의 生産과 社會生活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한 基盤, 組織, 施設, 機構의 유지가 곤란하여 農村 그 자체가 축소되지 않을 수 없는 過疏(岡田眞 1978)의 惡循環마저 우려되는 상태이다.

또한 農村人口의 相對的 過剩이란 農業機械化 즉 省力化에 의하여 구축되고 利潤率의 低落傾向으로서 구축되어 農業生産으로부터 배제될 수밖에 없는 人口이며 1인당 生産力의 上昇이 人口의 과잉을 결과한 內容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離農人口로 인하여 아직은 農村生活의 諸機能이 마비될 狀況에 직면하여 있지 아니하므로 農村人口의 過疏狀態가 아니며 또한 농업의 機械化로 인하여 농업인구가 구축된 것이 아니고 省力化는 농촌인구의 감소의 補完策인 것이므로 相對的 過剩狀態도 아니어서 離農의 助長이나, 防止나를 現時點에서 論議할 것은 아닌 것 같다.

2. 歸農이 아닌 人口의 유턴(U-turn), 제이턴(J-turn) 및 大都市 人口의 도우넛(doughnut)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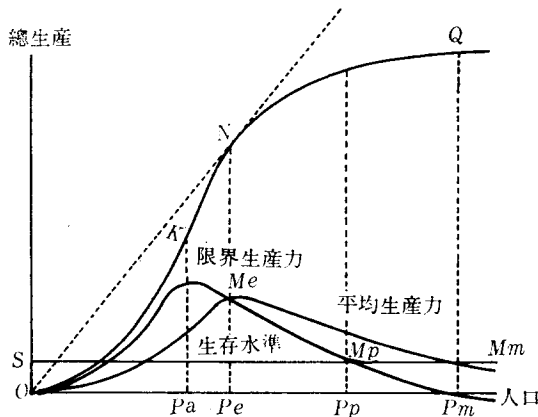
人口의 유턴(U-turn), 제이턴(J-turn) 및 大

都市人口의 도우넛(doughnut)化란 先進國에서 경험하고 있는바 人口移動의 한 가지 狀況으로서 유턴은 脫農業, 脫農村에서 귀농하는 경우와 脫工業·脫都市하였다가 工業 및 都市로 돌아가는 두 가지 경우를 연상 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脫農에서 歸農하는 경우를 말한다. 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大都市로의 人口流入이 정지 또는 줄어들 때는 大都市圈의 人口가 非大都市圈으로 많이 유출되고 있다. 이것은 大都市로 나간 農村人口가 本來의 鄉里인 農村으로 돌아오지 않고 中核的 地方都市로 이동되는 것으로서 大都市와 中小都市間의 人口이동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農村을 떠난 人口의 유턴(Uturn)이란 실질적으로는 거의 없고 완전하게 돌아오지 않고 中間都市에서 머문다는 뜻에서 人口의 제이턴(J-turn)만이 존재한다고 한다. 또한 美國의 예로는(李榮民 1982) 氣候, 맑은 공기, 에너지 節約, 生活費의 節減 등 원인으로 大都市의 人口가 都心地로부터 그 郊外인 周邊地域으로 이동하여 大都市는 마치 도우넛(doughnut)과 같은 人口 形態가 된다고 한다. 그리하여 都心地 人口는 매년 0.4%씩 줄고 都市外廓 또는 周邊人口는 1.5%씩 增加하여 美國人口 가운데 都市에 사는 비율은 30% 미만인데 외곽에 사는 사람의 비율은 50%에 육박하고 있다고 한다.

이상의 예로 미루어 보아 人口의 유턴, 제이턴, 도우넛化는 人間과 環境과의 問題일 뿐 農村人口의 適正化는 아무런 影響을 기대 할 수 없다.

캐난(Cannan, E.), 위크셀(Wicksell, K.) 등이 일반적으로 最適人口를 定義하기를(安川正彬 1979) <그림 1>에서와 같이 人口 1人當 平均生産力이 최대일 때의 人口 즉 그 社會의 限界生産力과 平均生産力이 일치될 때의 人口(OP₀)를 말

그림 1



하고 있으나 소우비(Sauvy, A.)는 一國의 國力을 理想으로 하여 生存水準과 限界生産力이 일치할 때의 人口(OP_p)를 말하고 있다. 그러나 最適人口의 定義도 特定時點의 靜態의 規定에서 時間의 經過에 따라 變하는 動態의 規定으로 발전되고 있으므로 주어진 條件下에서 最適人口(數的으로나, 比率的으로)를 규정하기란 매우 어렵다, 이것은 캐나다의 「Elementary Political Economy」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즉 人口增加가 언제나 産業生産을 감퇴시키거나 人口 감소가 언제나 産業生産을 증가시킨다는 것은 옳지 않으며 또 人口增加가 언제나 産業生産을 증가시키거나 人口 감소가 언제나 産業生産을 감소시킨다고 하는 것도 옳지 않다.

産業의 生産은 때로는 人口 증가에 의해서 때로는 人口 減少에 의해서 증진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最適人口란 資源, 生産技術, 經濟組織이 주어진 전제하에서 1인당 最大生産量일 때의 人口를 말하나 土地, 資源, 作物構成의 變化, 技術進步 환경조건의 變化 등으로 <그림 2>와 같이 生産函數가 移行되어 진다면 離農點(唯是康

그림 2 生産函數의 移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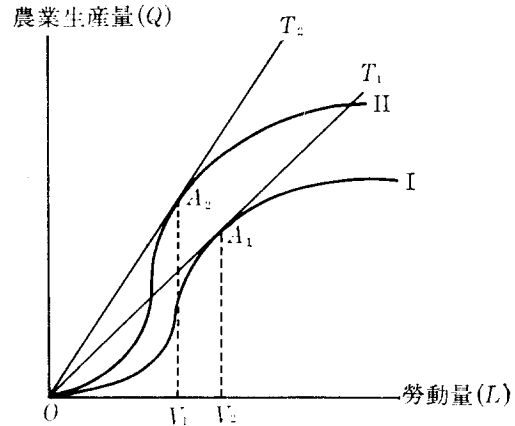


表 8 農業人口 및 農家經濟活動人口 1人當 畝平均生産力

연 도	농업인구 1인당 쌀 생산량(톤)	농가 경제 활동 인구 1인당 쌀 생산량(톤)	농가인구 중인구 ×100 (%)
1960	0.21	—	—
1963	0.25	0.71	—
1965	0.22	0.67	—
1967	0.22	0.69	—
1970	0.27	0.76	45.9
1973	0.29	0.74	42.9
1975	0.35	0.82	38.2
1977	*0.49	*1.05	33.8
1980	0.33	0.69	2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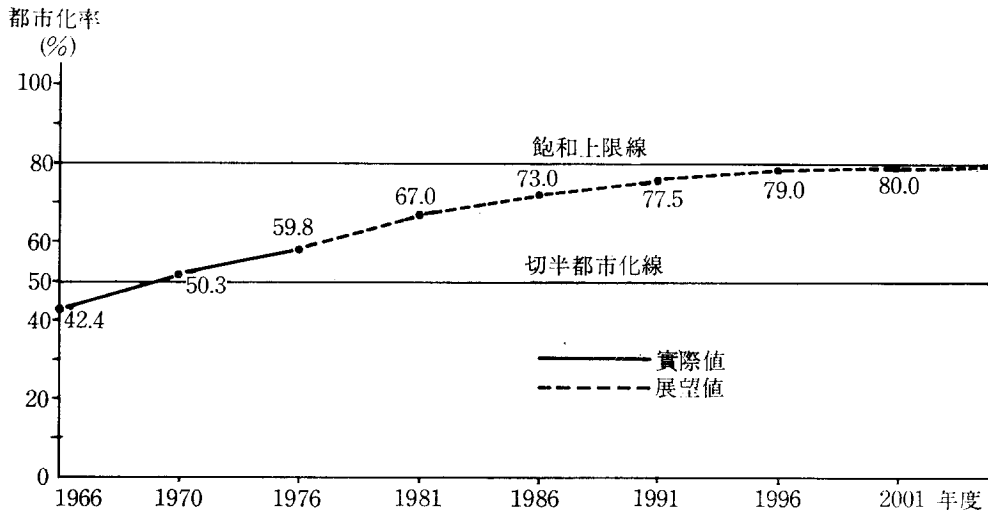
資料: 농수산부, 「농림통계연보」, 1980.

彦 1981) A₁도 A₂로 이동되고 따라서 最適人口도 OV₁에서 OV₂로 감소된다.

우리 나라의 農業 및 農村의 最適人口를 단순히 쌀 생산력을 내용으로 計算하여 본 것이 <表 8>이다. 즉 농가인구 비율 33.8%에 해당되는 1977년의 농가인구가 그것에 해당된다. 그러나 이 最適人口를 농업생산의 1인당 평균 생산력이 최대일 때의 人口, 食糧自給, 資源의 最大活用 均衡的인 人口配置, 푸른空間의 維持·管理라는 관점과 資料의 未洽 등으로 미루어 보아 과연 農村의 最適人口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다.

우리 나라는 현재와 같이 産業化, 都市化가 급속하게 진행된다면 都市人口의 비율은 80%선

그림 3 都市化의 趨勢와 展望



으로 수렴되어 都市는 飽和水準에 이를 것으로 <그림 3>은 展望하고 있다(亞細亞 政策研究院 1980, 176). 바꾸어 말하면 이것은 人口的 側面에서 總人口의 20% 가량이 農村에 머물르게 된다는 것이다.

이상의 여러 가지 例題와 離農이 進行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아 우리 나라는 現時點에서 離農을 조장할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하여 農村發展과 食糧生産을 우려하여 離農防止에 力點을 쪼개 정도로 農村人口의 비율이 적은 것은 아니므로 離農을 防止할 段階로 問題視되지 않는다.

IV. 離農·脫農에 對備한 農村 發展方向

오늘날 世界 各國은 그 발전과정에서 있어서 發展模型의 基元를 民間部門에 두고 있는 先進國 型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政府主導的 部門에 두고 있는 開發途上型이 있음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事實이다. 우리 나라는 1900년대 初부터 日帝의 植民地 邑속하에서 수탈당해 왔고 解放

후에도 국토의 分斷과 혼란의 연속, 中央集權의 統治, 資源不足 등으로 近代化 과정에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 그러므로 近代의 企業家가 육성될 수 없었고 경제적으로도 貧困이 계속되어 政府主導下의 發展計劃에 따라 近代化作業이 추진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 하나가 農村 近代化에 活力과 意志를 불어 넣어준 농촌 새마을운동이었다. 그것에 따라 農村도 自主的이고 意圖的, 조직적으로 새마을운동이 수행되어 農村環境도 크게 變모되었던 것이 70년대 10년 기간이었으며 이에 대한 농촌주민들의 반응 또한 肯定的이었다(表 9참조). 그러나 근간에 進 行된 離農·脫農의 現況과 原因을 고려해 볼 때 農村의 發展이 지속될 것인가는 의문이다. 왜냐 하면 첫째, 農家所得은 상대적으로 低位水準에 머물러 都農間의 所得隔差는 커가고 있으며, 둘째, 농민들의 價値觀의 확립과 농업에 대한 애 착이 의문스럽고, 셋째, 농촌의 定住 環境條件 또한 缺如되어 있어 계속적인 離農은 농촌발전 에 否定的인 影響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되기 때 문이다.

表 9 새마을 운동에 대한 농촌주민들의 반응

새마을 운동의 성과	있었다	그저 렇다	없었다
%	87.6	11.2	1.2
새마을 운동의 지속(필요성)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모르겠다
%	93.5		6.5
새마을 운동의 추진方向	官主導	民主導	官民 協同
%	10.7	21.9	66.3

또한 離農이 계속되어 適正水準 이하로 農業人口가 감소되면, 첫째, 농업노동은 질적, 양적으로 더욱 저하되어 이것이 농업생산을 감소시킬 것이며 식량과 工業原料의 不足은 국민경제를 위축시킬 것이다.

둘째, 離農의 原因이 해소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추진된다면 그 裏面에는 農村定住生活에 不安을 느끼고 또한 농촌에 남아서 活動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스스로 無能力者로 자인하는 나머지 그 劣等感 때문에 意欲과 意志가 격감되어 농촌 발전은 그 추진이 어렵게 될 것이다.

셋째, 離村向都로 인하여 過密化 되어지는 都市人口는 都市의 受容態勢가 完備되어 있지 않은 우리나라의 實情下에서는 都市生活의 모든 질서가 파괴되고 범죄사건들이 유발되어 새로운 否定的인 문제를 야기시키게 될 것이다. 농업인구의 감소는 산업화에 따른 필연적인 사실이지만 否定的인 영향을 도시와 농촌에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表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農家の 所得增大, 農業生産의 基盤造成, 農

表 10 앞으로 農村發展을 위하여 치중되어야 할 分野

單位：%

1순위 (156명)	2순위 (144명)	3순위 (100명)	4순위 (53명)
소득 증대 (34.0)	환경 개선 (34.0)	농업기반조성 (20.0)	환경 개선 (22.6)
환경 개선 (21.8)	소득 증대 (18.1)	소득 증대 (17.0)	농업기반조성 (15.1)
농업기반조성 (17.3)	농업기반조성 (14.6)	환경 개선 (14.0)	정신순화교육 (15.1)
정신교육 (8.3)	도로확장포장 (9.0)	도로 확장 (9.0)	소득 증대 (13.2)
도로확장포장 (7.1)	정신교육 (4.9)	정신 개발 (7.0)	도로 확장 (11.3)
복지 (3.2)	문화 복지 (4.9)	문화 복지 (5.0)	기타 (22.6)
기타 (8.3)	기타 (14.6)	기타 (24.0)	

村生活의 환경개선에 중점을 두는 한편 地方의 小都市를 개발시켜 농민들의 農外就業 機會와 都農間의 連繫를 해줌으로써 농촌이 발전될 수 있을 것이므로 그에 대비한 施策이 강력히 추진되어야 할 시기이다.

參考 및 引用文獻

金文植, “就農과 離農의 限界,” 『農業經濟研究』, 第 1 輯, 韓國農業經濟學會, 1958.
 洪東植外 2人, 『農村社會學』, 法文社, 1982.
 李榮民, “우리 나라 人口의 動態와 展望,” 『地方行政』, 1982. 5.
 農林部 農政局, 『農業人口와 農家所得』.
 亞細亞政策研究院, 『韓國의 人口問題와 政策方向』, 1980.
 岡田 眞, 『人口 U-turn 과 日本의 社會』, 大明堂, 1978.
 安川正彬, 『人口의 經濟學』, 春秋社, 1979.
 唯是康彥, 『食糧需給과 農家行動의 相互關係』, 日本 農業經濟學會, 1981. 9.
 Cannan, E., *Elementary Political Economy*, London.
 Ansley J. Coale and Edgar M. Hoover, *Population Growth and Economic Development in Low-Income Countries*, 1958.